

명 남 재 | 화산엔지니어링 수자원부
(hyspe@lycos.co.kr)

한국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화천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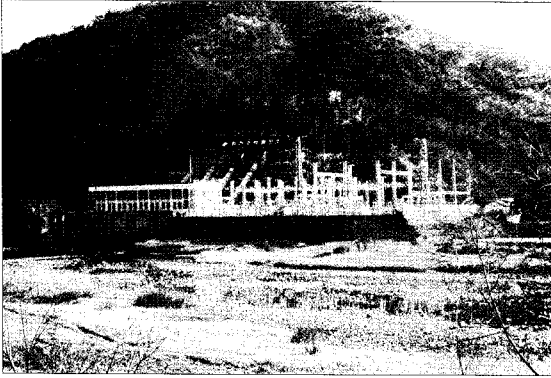
1. 들어가며

화천댐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구만리에 세워져 있으나, 댐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고 마을 도로를 이용하여 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댐은 길가에서 댐의 모습을 쳐다 볼 수 있지만 화천댐만은 꼭꼭 숨어 있고 안내간판마저 없어 댐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화천댐은 여수로식이 아니고 도수로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댐과 발전소간의 하천에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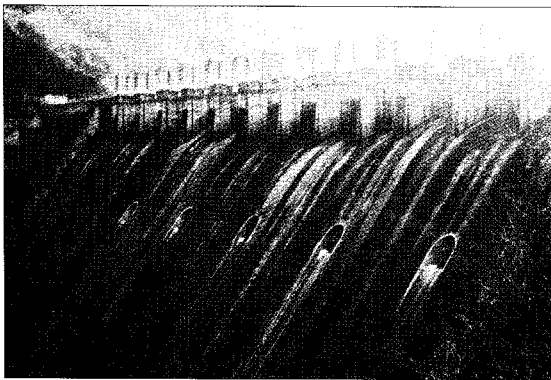
화천댐은 일제 강점기인 1939년 중부지방의 군수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였으며 1944년 준공되었다. 화

천발전소의 시설용량은 1944년 27,000kw×2기로 건설되었으나 한국전쟁 등을 겪고 난 후 보수와 더불어 시설용량을 2배로 키워 현재는 27,000kw×4기로 운영 중에 있다.

화천댐의 본체에는 다른 댐에서는 볼 수 없는 비상배수구가 5개 설치되어 있다. 평화의 댐이 설치되는 지점은 화천댐의 상시만수위보다 낮아 평화의 댐 기초공사시 수공공사를 하여야 하나 조속한 시간 내에 건설하여야 하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화천댐의 수위를 낮추기로 결정하였다. 화천댐 본체에 설치된 5개의 비상배수로는 평화의댐 건설을 위하여 화천댐의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1987년 설치된 것이다.



〈그림 1〉 화천발전소, 도수로식으로 운영한다.



〈그림 2〉 화천댐에만 있는 5개의 비상배수구가 댐체에 설치되어 있다.

1950년 발생한 한국전쟁으로 우리나라 모든 지역, 모든 시설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화천댐은 전쟁의 회오리 속에서 살아남은 시설이다. 화천댐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화천댐은 북한에 속하였으며 한국전쟁시 남한은 화천댐을 무척 소유하고 싶어했다.
- 한국전쟁시 화천발전소 탈환전에서 엄청나게 많은 중공군을 소탕하여 화천발전소 탈환전 이후 휴전회담이 진행되었다.
- 화천발전소 탈환전 당시 화천저수지에 많은 중공군이 수장되었다.
- 배가 아닌 비행기를 이용하여 어뢰를 발사하여 화천댐 여수로 수문을 파괴시켰다. 그것도 북한이 아닌 아군에서 공뢰를 발사하였다.

2. 5.14 단전조치

화천댐이 준공될 당시 우리나라는 남한, 북한으로 나뉘지 않았으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 우리나라에서 물러가면서 우리나라는 서구 강대국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게 되었다. 화천댐은 38° 이북에 위치하고 있어 북한의 통치하에 있었으며, 한국전쟁 당시 화천댐은 남한이 무척이나 가지고 싶어했던 시설물중 하나이다.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발전설비는 대부분 수력발전설비이다. 광복 직후인 1945년 우리나라 발전설비용량은 200,000kw,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1,700,000kw로, 북한은 남한에 비해

〈표 1〉 광복 직후 남한과 북한의 수력발전 현황

연도	발전소명	용량(KW)	수계	개발회사
북한지역		1,707,176		
1905	운산수력	550	청천강 지류 구룡천	동양금광회사
1912	원산수력	86		원산수력전기
1929	부전강수력	200,000	부전강	조선수력전기
1937	장진강수력	334,300	장진강	조선수력전기
1940	부령천수력	28,640	두만강 지류 부령천	부령수력전기
1941	허천강수력	354,600	허천강	허천강수력전기
1943	수풍수력	735,000	압록강	압록강수력발전
1944	화천수력	54,000	북한강	한강수력발전
남한지역		62,240		
1931	운암수력	5,120	섬진강	남선수력전기
1937	보성강수력	3,120	섬진강 지류 보성강	보성흥업
1943	청평수력	39,600	북한강	한강수력발전
1945	철보수력	14,400	섬진강	남성전기

여 8.5배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남한은 청평수력 발전소와 당인리 화력발전소만 보유하고 있었지만, 북한은 수풍발전소 735,000kw, 허천강수력 345,000kw, 부전강수력 200,000kw, 장진강수력 334,000kw, 화천수력 54,000kw 등 총 1,700,000kw의 수력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남한은 필요전력의 90% 정도를 북한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었다.

1948년 5월 14일, 북한은 남한으로 공급하던 전력을 중단 시키는 5·14 단전조치를 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남한은 일대 혼란을 겪게 되었다. 단전조치는 남한과 북한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전력을 공급 받지 못하는 남한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남한의 모든 생산활동이 마비되었으니 우리나라의 최초의 에너지 파동은 1973년에 발생한 1차 오일쇼크, 1978년에 발생한 2차 오일쇼크가 아닌 1948년에 발생한 5·14 단전조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남한에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낙동강까지 밀리던 전선이 인천상륙작전에 의하여 전세가 역전되어 화천발전소를 남한이 소유하게 되었다. 남한의 총발전설비 200,000kw의 1/4에 해당하는 54,000kw의 화천발전소를 남한이 소유하게 됨으로서 남한은 전력공급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951년 중공군의 개입으로 아군은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1·4후퇴를 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화천발전소는 또 다시 북한 수중으로 떨어지고, 아군은 1951년 5월 화천발전소의 탈환전을 계획하게 된다.

1951년 5월, 중공군은 한국전에 투입된 병력의 대부분을 제5차작전에 투입하였으나 아군이 용문산전투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방어하면서 중공군은 화천방향으로 퇴각하였다. 퇴각하는 중공군을 화천에서 모두 소탕한 작전을 화천발전소 탈환전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파로호전투라고도 부르고 있다. 용문산전투와 화천발전소 탈환전에서 중공군이 입은 피해병력은 약 10만명 정도이며, 아군의 화천발전소 탈환전 이후 아군과 중공군간에는 휴전필요

성이 제기되고 이후 전투는 고착전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화천발전소를 중심으로 한국전쟁의 큰 흐름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전쟁이 끝난 후 보수와 증설을 거쳐 1968년 화천발전소의 발전설비용량은 당초 54,000kw에서 108,000kw으로 증설되어 남한의 중요전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이후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이루고 발전설비용량도 크게 변하였다. 1945년 발전설비용량 200,000kw중 수력발전은 60,000kw로 수력발전이 전력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31.4%로 의존도가 대단히 높았다. 2007년 우리나라의 총발전설비용량은 68,000,000kw이며 이중 수력은 5,500,000kw으로 전체용량 중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자력은 17,700,000kw으로 26%를 차지하고 있다. 약 60여년간 발전설비용량은 340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화천발전소에서 생산되던 전력이 무척이나 소중하였으나 2007년 현재의 화천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우리나라 전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또한번 화천댐은 우리나라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다. 바로 조속히 평화의댐을 건설하기 위하여 화천댐의 수위를 낮추어야 하며, 화천댐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화천댐 본체에 5기의 비상배수호가 필요했던 것이다. 현재 화천댐을 방문하면 5기의 비상배수호가 커다란 구멍을 들어 내놓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화천댐은 접경지역에 있는 시설물인 관계로 유사시에는 항시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모양이다.

3. 용문산전투

한국전쟁에서 아군의 공격에 의하여 중공군은 10만 병력의 손실을 입고 결국 한국전쟁을 휴전하게 만든 화천발전소 탈환전은 용문산전투와 연계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용문산전투와 화천발전소 탈환전은 중공군의 제5차작전을 무력화한 작전으로 용문산전투는 방어전투, 화천발전소 탈환전은 패퇴한 중공군에 대한 섬멸전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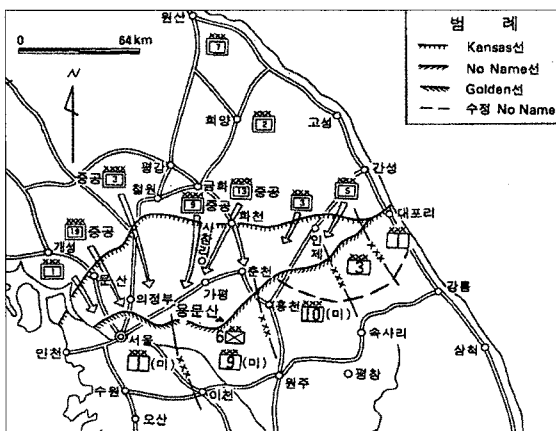
한국전쟁이 발생한 후 아군의 인천상륙작전에 의하여 전세가 역전되어 북한이 압록강까지 밀리게 되고, 북한을 돕기 위하여 1950년 10월 중공군이 한국전선에 나타나자 중공군과 한미연합군간에는 7개월에 걸친 공방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마침내 1951년 5월 하순, 중공군은 한국전에 투입된 병력 70만명 중 80%에 해당하는 54만명을 동원하는 제5차작전을 시작하였다. 중공군의 제5차작전은 2단계로 추진되었으며, 제1차 춘계공세는 1951년 4월 22일에 개시되었으며, 제2차 춘계공세는 1951년 5월 18일부터 시작되었다.

1951년 4월 22일 개시된 중공군의 제1차 춘계공세는 미1군단이 맞고 있는 서부전선과 미9군단이 맞고 있는 중부전선을 돌파하여 서울을 이중 포위할 계획이었다. 이중 미1군단은 임진강 부근에서 적에게 연속적으로 타격을 가하고 한국의 제1사단과 미 제3사단이 신속히 전선을 재정비함으로써 서울 북쪽의 골든선(Golden Line)을 지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미 제9군단에 배속되어 철원군 김화지구로 진출하려던 한국의 제6사단은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계곡에서 중공 제20군, 제40군 등 6개 사단의 집중공격을 받고 1/3에 가까운 병력과 주요 장비를 모두 잃는 치욕적인 참패를 당하였다. 이를 사창리전투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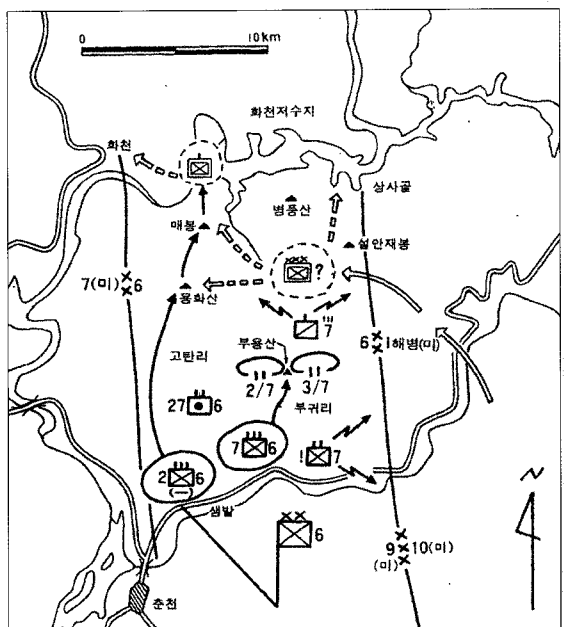
이로 인하여 미 제9군단을 흥천-용문산-덕소지역까지 철수시키고 미 제1군단의 골든선과 연결하는 새로운 방어선인 No Name 선을 형성하였다.



(그림 3) 1951년 5월 16일 전선

제1차 춘계공세를 마친 중공군은 미 제9군단의 정면에 배속된 한국 제6사단이 방어하는 용문산을 공격하는 동시에 인제군 현리지구의 미 제3군단을 포위하는 제2차 춘계공세를 1951년 5월 18일, 중공 제63군 예하의 3개 사단(제187사단, 제188사단, 제189사단)의 선제공격으로 개시되었다. 한국 제6사단의 경계부대인 한국 제2연대를 한국의 주저항선으로 착각한 중공군은 전 병력을 투입하여 공격하였다. 한국 제2연대는 사력을 다해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사이에 아군의 10여 차례의 공중폭격, 미 제9군단과 인접부대의 포병이 한국 제2연대를 집중 지원하였다. 이렇게 한국 제2연대가 2일 동안 거점을 지켜내는 동안 아군은 중공 제63군을 역습하여 중공군 병력의 절반가량을 섬멸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로서 중공 제63군의 잔류병력을 가평 북방으로 후퇴하고 미 제8군은 일거에 60km를 진출하여 새로운 방어선인 칸사스선(Kansas Line)을 확보하였다.

4. 화천발전소 탈환전



(그림 4) 화천발전소 돌입상황

용문산에서 패퇴 후 화천지역으로 퇴각한 중공군은 더 이상 화천저수지를 도하하지 못하고 동쪽의 양구방향과 서쪽

인 철의 삼각지대등 양쪽으로 퇴로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미 제10군단이 신속히 양구 정면으로 기동시켜 동쪽의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중공군은 유일하게 남은 기동로인 오음리-구만리간의 통로를 이용하여 철의 삼각지대로 퇴각하려 하였다. 이리하여 26일부터 이곳으로 밀리기 시작한 적은 오음리 일대로 운집하여 461번 지방도로를 따라 밀집대형으로 복상하기 시작하였다.

미 제8군은 중공군에 대한 섬멸전을 전개할 목적으로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을 적의 집결지로 예상되는 철의 삼각지대로 진출시키고, 중부전선의 미 제9군단과 제10군단으로 하여금 화천저수지 동서의 계곡을 차단케 하는 동시에 모든 포병과 공군의 눈부신 활동으로 지대내의 적을 섬멸하였다.

사단정보참모는 5월 28일 이 지역 일대에는 중공 제12군, 제15군, 제20군, 제27군 등 4개 군 소속의 패잔병 20,000~30,000명이 구만리와 오음리 일대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 포위망이 압축됨에 따라 그 수는 더 증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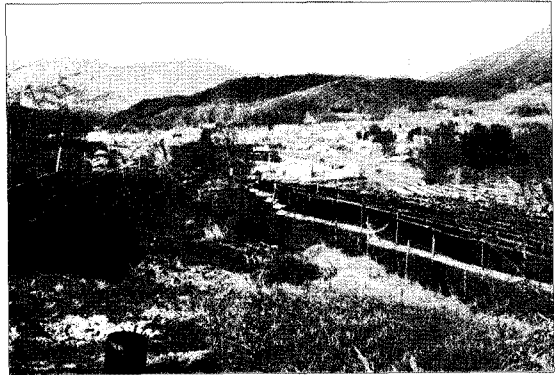
중공군의 괴멸에 대하여 황진하(黃震霞) 편저의 중공군인지(中共軍人誌 : 1968년도 홍콩발행)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5월 20일부터 진사병단(陳謝兵團)은 미 제10군단으로부터 유례없는 대량의 포사격 즉, 1일간에 100만발을 쏘는 포격을 받고 공격이 돈좌되었다. 이어서 5월 22일에는 미 제9군단이 미 제10군단의 좌측으로 진출함으로써 팽덕회(彭德懷)가 총 퇴각명령을 하달하였다. 그 뒤로 진사병단은 미 제9군단과 미 제10군단으로부터 치밀한 공격을 받아 전선이 붕괴되면서 사상자 10만, 포로된 자 1만 이상, 그리고 병단의 모든 장비를 잃어버리는 미증유의 참패를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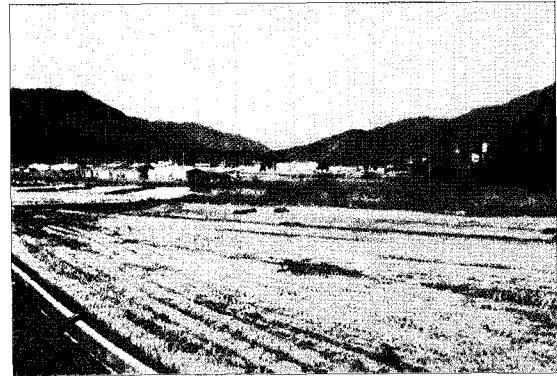
화천발전소 탈환전에 투입된 한국 제6사단은 오음리-유촌리에서 유례없는 중공군을 섬멸한 후 5월 29일 17시 칸사스선(Kansas Line)인 매봉-병풍산-설안재봉 일대를 확보함으로써 화천발전소 탈환전을 마무리 짓게 되었다.

용문산 방어전에서 화천발전소 탈환전까지 전개된 작전에

서 중공군은 10만의 병력을 잃는 등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 공산측은 휴전회담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이후 정치적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면은 고착전으로 변하였다.



(그림 5) 오음리 전경



(그림 6) 유촌리 전경

5. 파루호

이 전투기간 중 구만리 통로가 막힌 중공군은 저수지를 헤엄쳐 도주하려고 하다가 가파르고 미끄러운 절벽에서 떨어져 익사하는가 하면 포격과 폭격에 결정타를 맞아 대부분 쓰러지고 겨우 살아남은 일부의 적이 도처에서 투항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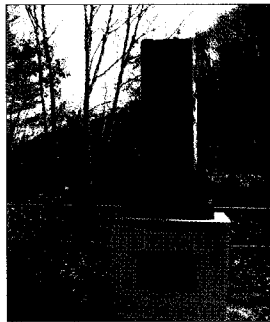
5월 30일 오음리에서 유촌리에 이르는 461번 도로에는 중공군의 시체가 좁은 길을 메우고 있었고, 능선과 계곡마다 시체와 군마 등이 널려 있었다. 이에 한국 제6사단은 공병대의 불도저를 동원하여 먼저 도로상의 시체를 길옆으로 밀어내고 보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정리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 매장 해주었다. 6월 2일 제2연대 주최로 구만리 고개에서 적군의 위령제를 지낸 얼마 후 저수지 수면에 많은

중공군의 시체가 떠올랐다. 부패된 시체들을 목격한 뒤로 한 동안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고 한다.

전투가 끝난 4년 뒤 1955년 전승기념비 건립을 추진하면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수많은 중공군이 화천저수지에 수장되었다하여 저수지명칭을 파로호(破虜湖)로 명명하였다. 그 이후 화천저수지는 파로호로 불리고 있으며 구만리 고개에는 자유수호의탑이 세워져 있다. 461번 도로변에 설치된 자유수호의탑에서는 물을 가득 머금고 있는 화천댐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승만 대통령의 휘호를 새긴 파로호비는 1990년 새로이 전망대가 조성되면서 파로호비를 전망대로 이전하였다. 파로호비에는 한국6사단의 상징인 청성표시도 되어 있다.



〈그림 7〉 자유수호의탑. 파로호가 보이는 461번 도로변에 있다.



〈그림 8〉 파로호비. 전망대에 설치되어 있다.

6. 화천댐 수문파괴

중공군은 화천댐의 수문을 열어 한강을 건너는 아군에게 수공(水攻)을 하기 위하여 화천저수지에 물을 가득기 시작하였다. 만약 만수가 된 저수지물을 일시에 방류하게 되면 아군은 작전지역이 양단될 뿐만 아니라 지역내 많은 군사시설

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판단하여 B-29 폭격기를 동원해 댐의 파괴를 시도하였지만 중공군은 항공공격에 대비하여 댐 위에 큰돌들을 대량으로 깔아서 아무런 전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1951년 4월 9일 특공대를 침투시켜 수문 관양기를 파괴시키도록 하였으나 이 또한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미 제8군은 화천댐의 파괴를 해군 항공대에 요청하였다. 요청을 받은 항공모함 프린스턴은 공격기 스카이라이더 6기와 호위기 폴세어 5기를 발진시켰다. 주변의 산악과 중공군의 대공사격을 뚫고 스카이라이더는 어렵게 공격을 했지만 댐의 한 복판에 커다란 구멍이 한 개 만들어 놓았을 뿐 정작 파괴되어야 하는 수문은 전혀 파괴되지 않았다.

심사숙고 끝에 파로호의 수문을 파괴하기 위하여 바다에서 사용하는 어뢰를 이용하였다. 어뢰를 사용하기 위한 장애물은 댐을 둘러싼 해발 1,000m 넘는 산, 주변 산악에 준비하게 대기하고 있는 중공군의 대공포대, 좁은 수면과 얇은 수심도 또 다른 장애물이었다. 공격기의 속도가 발사될 어뢰의 속도보다 빠르면 안 되고, 너무 높은 고도에서 발사하면 어뢰가 튀어버릴 수 있었다. 마침내 1951년 5월 1일, 낮은 고도와 낮은 속도로 비행한 후 마침내 어뢰는 목표에 명중하였다. 중앙수문은 완전히 파괴되어 두 쪽이 나버리고 두 번째 수문은 직경이 3m가 넘는 구멍을 만들었다. 폭발이 만든 충격은 호수면에 커다란 파도를 일으켰다. 폭발을 끝낸 조종사들은 어마어마한 물줄기 부서진 수문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림 9〉 1951년 5월 1일 아군 공군기에 의하여 파괴된 화천댐



〈그림 10〉 비행기로 화천댐의 수문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사진에서 보는 방향에서 공격해야 한다.

7. 화천군의 어제와 오늘

일본이 한반도에서 물러나면서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각각의 정부가 들어설 때 화천군은 38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어 북한에 속하였다. 북한이 한국전쟁을 준비하면서 화천군은 춘천지역을 공격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아 많은 병력을 주둔시키고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수차례의 아군의 북진과 북한의 남하가 잇달리면서 화천은 격심한 전쟁터가 되었다. 특히 1·4후퇴, 1951년 4월과 5월의 중공군의 총공세에서 화천군은 모든 민가가 불타버릴 정도로 완전 초토화되었다.

화천군은 아직도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지역이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30여년이 지나자 화천군에는 또다시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되었다. 1986년 10월 21일 북한이 금강산발전소를 작공한다는 발표에 따라 우리나라는 1986년 11월 26일 평화의담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2006년 6월 15일 평화의담 2단계 공사를 완료하여 북한의 임남담이 인위적인 원인 혹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하여 붕괴되더라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화천군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으로 유사시에는 역사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화천군은 인류역사에서 더 이상의 분쟁과 전쟁이 없는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매년 비목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조연히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지녘에~”로 시작하는 비목은 한국전쟁 중 산화한 무명용사의 돌무덤과 휴전선 일대의 적막한 정경의 애상을 적은 것으로 6월이 되면 팔려

이는 태극기와 함께 국민가곡으로 불리고 있다.

화천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은 화천이 전쟁의 상처를 가슴깊이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보다는 매년 1월에 개최되는 산천어축제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을지 모른다. 공공 얼어버린 얼음을 깨고 잡는 산천어낚시는 겨울철 얼음판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매년 20만명이 다녀가고 있어 우리나라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연속 선정되기도 하였다.

화천군에서는 또한 여름철에 즐길 수 있는 여름축제로 쪽배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총상금 2,000만원이 걸린 쪽배 콘테스트는 다양한 소재와 아이디어의 쪽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화천이 더 이상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말고 산천어축제와 쪽배축제가 온 국민의 관심을 가지는 평화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지역으로 변하기를 기원해본다. ●

참고문헌

- 한강계수력발전소사, 한국전력공사 한강수력발전처
 용문산전투, 한국전쟁전투사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자원부, 2006
 2008년도 발전설비현황, 한국전력거래소
<http://cafe.naver.com/ddsan/783>
 파괴된 우리나라 댐, 유용원의 군사세계 <http://bemil.chosun.com/>
 파로호의 미해군 어뢰공격 <http://kr.blog.yahoo.com/waterview33/224.html>
 육군본부, 교육참고 7-7-1 『전장사례연구(제1집)』, 1983



〈그림 11〉 화천으로 가는 5번 국도상의 38선 표시석



〈그림 12〉 쪽배 콘테스트 장면